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869.83 (-108.11)	834.20 (-30.45)		
↑ 금리 (연·5년)	↓ 환율 (원·달러)		
3.847 (+0.051)	1412.15 (-0.85)		

전·월세난 ‘패닉 바잉’ 20·30대 매수자 급증

7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현황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빌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지난 2021년 ‘패닉 바잉(공황 구매)’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 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전체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754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11월(788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대의 매수가 늘었다.

서울 생애최초 매수건수 7547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아

30대 매수 4300건, 전체의 57%
20대 887건, 비중 11.8%로 확대

은평구 거래비중 11.1% 가장 높아
실수요자 중심 빌라 매수도 급증

30대의 생애최초 매수는 지난달 4300건으로 전월(3979건) 대비 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확대됐다. 20대 역시 6월 765건에서 7월 887건으로 늘며 비중이 11.8%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는 654건에서 571건, 60대는 321건에서 274건으로 감소해 지난달 생애최초 매수 증가는 20·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는 일반 매수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20·30대 실수요층의 매수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와 주택 구입을 고려하던 실수요층의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를 비롯해 2030세대도 진입 가능한 가격대의 지역에서 생애최초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 전체 생애최초 매수 가운데 은평구가 841건(11.1%)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중은 올해 상반기 5~6%대를 유지하다 6월 8.7%, 7월 11.1%로 빠르게 높아졌다. 노원구와 강서구는 각각 607건(8.0%), 526건(7.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은평구는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이 형성돼 있고, 지하철 3·6호선을 통한 도심 접근성과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대단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생애최초 매수층의 관심을 끈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은평구의 경우 매수세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도 늘었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신고가 거래 비중은 올해 4월 18.1%에서 5월 21.1%, 6월 24.5%, 7월 28.7%까지 상승했다.

단지별로는 응암동 ‘백련산해모로’,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을 비롯해 수색·증산동 DMC뉴타운 일대의 DMC SK뷰아 이파크포레·DMC롯데캐슬더퍼스트·DMC 센트럴하이(2단지) 등 역세권이나 준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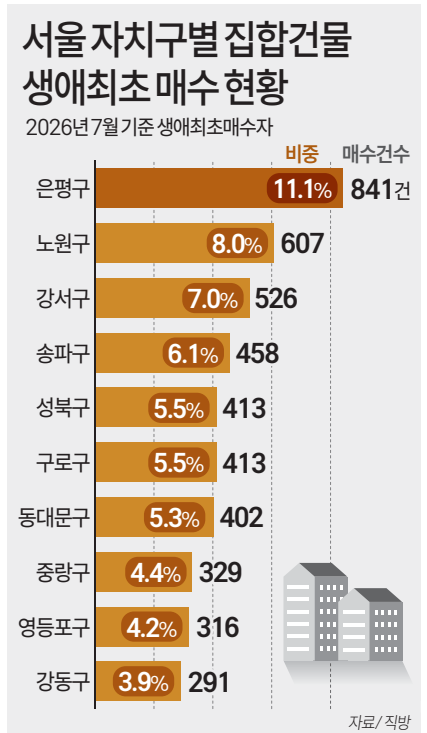
그간 부진했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졌고, 보증금 인상과 함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빌라 매수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거래금액은 4조93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1% 늘었다. 5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난 2021년 2분기(5조1887억원) 이후 최대치다.

거래량은 1만1536건으로 전분기 대비 11.7% 증가했다. 거래량 역시 2021년 3분기(1만3652건) 이후 가장 많았다. /한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 18일 서울 서초구 LG 데이터팩토리를 방문해 LG전자 클로이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LG전자

LG-엔비디아, 로보틱스 협력 ‘속도전’

젠슨 황 장녀 매디슨 황 이사
양재 LG 데이터팩토리 찾아
류재철·현신균 CEO 등 참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부문 수석 이사가 18일 LG전자의 로봇 사업 핵심 거점인 양재 데이터팩토리를 찾았다.

최근 미래 전략사업 협력에 손을 맞잡은 LG전자와 엔비디아가 로봇 학습 데이터와 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며 로보틱스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서울 서초구에 구축 중인 LG 데이터팩토리에서 엔비디아 핵심 관계자들과 양사 협업 방향을 점검하고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LG 측에서는 류재철 LG전자 CEO와 현신균 LG CNS CEO,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직접 방문했다. 황 수석 이사는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등 퍼지컬 AI 관련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LG와 엔비디아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미래 전략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양사는 업무협약에 이어 로봇 데이터팩토리 구축 현장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며 로보틱스 분야 공동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 관계자들은 이날 연례 풀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양재 데이터팩토리의 가동 현황도 살펴봤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가정용 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투입해 데이터 생성과 수집, 학습

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팩토리는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검증·정제하는 공간이다. LG 클로이드는 가정 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을 모사한 제조환경에서는 부품 운반·적재·조립 등을 수행한다. LG CNS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과 LG이노텍의 로봇 손 학습 공간에도 로봇이 투입돼 있다.

확보한 데이터에는 엔비디아의 퍼지컬 AI 기술이 접목된다. 옴니버스 라이브러리와 코스모스 오픈월드 모델, 아이작 오픈로보틱스 개발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제조물류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증강·학습하고 로봇 학습에 활용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셀트리온, 프랑스 지프레 통합… 9000개 약국망 확보

바이오시밀러 유통망 확보에 더해
더마·타사 의약품 등 플랫폼 선배

셀트리온이 그동안 유럽에서 자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는 체제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한 가운데 현지 유통망까지 확보해 더마 화장품, 헬스케어 제품, 타사 의약품까지 아우르는 유통 플랫폼을 선보인다.

셀트리온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 인수 후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유럽 현지를 직접 찾아 조직 운영과 약국 가동 상황을 점검하며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유럽 사업 정비의 핵심은 유통망 플랫폼화다. 유통망 자체를 하나의 거대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프레가 보유한 프랑스 내 9000여 개 약국 영업망과 800여 개 병원 공급망을 자사 제품 판매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사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타사의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셀트리온그룹 내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가 꼽힌다. 오는 2027년 초 프랑스 약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스킨큐어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지피덤’을 공개할 예정이다. 피부 질환 바이오의약품 영업으로 구축

한 현지 의료진 네트워크와 지프레 약국망, 지피덤의 고성능성 K더마 뷰티를 결합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최근 글로벌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 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이중 해외 매출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커졌다. 이러한 해외 성과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DRN), 상피세포 성장인자(BGF) 등 항노화 성분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이 뒷받침됐다. <4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을지 NSC 전체회의 주재…“을지연습 北 공격 의도 없어”
▲국힘 “‘李, 1분1초가 위험한 대통령…한미동맹 안보·통상 무너져” /사진 뉴시스

▲‘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된 권성동도 변호사 등록 취소될 듯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3주 내 보고…사각지대 해소

▲다시 무더워진 서울, 19개구 폭염주의보…대응 체계 재가동
▲위생·원산지 위반 업체, 최대 6개월 학교급식 입찰 제한